
2026년 춘천미래동행재단 사업분석 및 정책연구를 위한 시민(참여자) 의견 조사 결과 보고



춘천미래동행재단
정책개발전담

2026년 시민(참여자) 의견조사 결과 분석 보고

- 춘천미래동행재단 사업 분석 및 2027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조사명	춘천미래동행재단 사업분석 및 정책연구를 위한 시민(참여자) 의견 조사
조사기간	2026. 7. 27.(월) ~ 8. 18.(화)
조사대상	춘천시민 및 춘천지역 생활권자
조사방법	네이버폼 기반 온라인 구조화 설문 (자기기입식)
유효표본	847명
문항구성	8개 영역 32문항 (객관식 28 + 자유응답 4)
분석일	2026. 9. 7.

□ 요약

핵심 수치 8선

지표	결과
종합만족도	4.35점/5점
추천 의향	4.44점/5점
재단 필요성 동의	4.77점/5점
재단 인지도	67%
현재 사업 참여율	81%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	86%
노인일자리 최우선 개선과제	참여기회 확대 58.5%
초고령사회 최우선 정책	연령·역량 맞춤 일자리 확대 83.4%

○ **사업 운영 만족도**

- 종합만족도 4.35점/5점만점(긍정률 91.4%), 추천의향 4.44점/5점만점, 재단 필요성 동의 4.77점/5점만점
- 7개 세부항목이 모두 4점 이상(4.09~4.45점)

○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 사항**

- 1순위: 참여기회 확대 36%(479명)
- 2순위: 활동비·급여수준 개선 17%(224명)
- 3순위: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14%(191명)
- **직원 친절성·전문성 만족도는 4.45점으로 7개 항목 중 가장 높음**
- 자유응답 435건 중 선발·면접 관련 의견 21건

○ **사업별 인지도**

- 중장년·노인 일자리 사업 69.3%(571명)
- 그 외 9개 사업 4.7~25.8%(39~213명)

○ **사업별 참여 의향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

- 건강·걷기·생활운동 80% / 현재 인지도 9.6%
- 중장년 재취업·경력전환 75% / 현재 인지도 6.3%
- 사회공헌·자원봉사 75% / 현재 인지도 12%
- 조사한 9개 사업 모두 현재 운영 중인 사업

○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성**

- 매우 동의 43%(326명)
- 동의 43%(328명)
- 보통이다 12%(95명), 필요하지 않다 0.5%(4명)
- 평균 4.27점, 유효응답 801명
- 관련 문항: 4.51점

○ **자유의견 분석**

구분	주요 의견
일자리 확대·다양화	참여기회 확대, 신규 일자리 발굴, 전문성·경력 활용형 일자리 확대
선발·배치체계 개선	소득·역량 등을 고려한 선발, 공정성 강화, 적재적소 배치, 신청절차 개선
근무환경·처우 개선	활동시간·보수, 노동강도, 폭염 등 안전관리, 수요처 존중
건강·돌봄·교육·문화 확대	건강관리 프로그램, 통합돌봄, 찾아가는 복지,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통합적 정책지원 강화	생애재설계, 대학·산업 연계, 사업정보 통합, 지역자원 연계 및 플랫폼 기능

□ 핵심 지표

구분	지표	결과	비고
만족	종합만족도	4.35 / 5	긍정률 91.4%
	추천 의향	4.44 / 5	추천 87.4%
	재단 필요성 동의	4.77 / 5	동의율 98%
인지	재단 인지도(사업내용까지)	67%	인지경로 1위: 구전 47.2%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율	69.3%	10개 사업 중 1위
	타 사업 인지 확산 여지	4.7 ~ 25.8% (2위~ 10위)	참여의향 대비 성장 여력 보유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인지)] [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수요)]
기대	정책연구 강화 필요	86%	조례 제4조 제1호
	일자리 확대	83.4%	최우선 정책
과제	참여기회 확대 요구	58.5%	개선 요구 1순위
	신규사업 참여 의향	79.1%	AI·디지털 교육 분야
	읍·면 접근성 개선 동의	4.62 / 5	

□ 응답자 특성과 표본 신뢰성

1. 응답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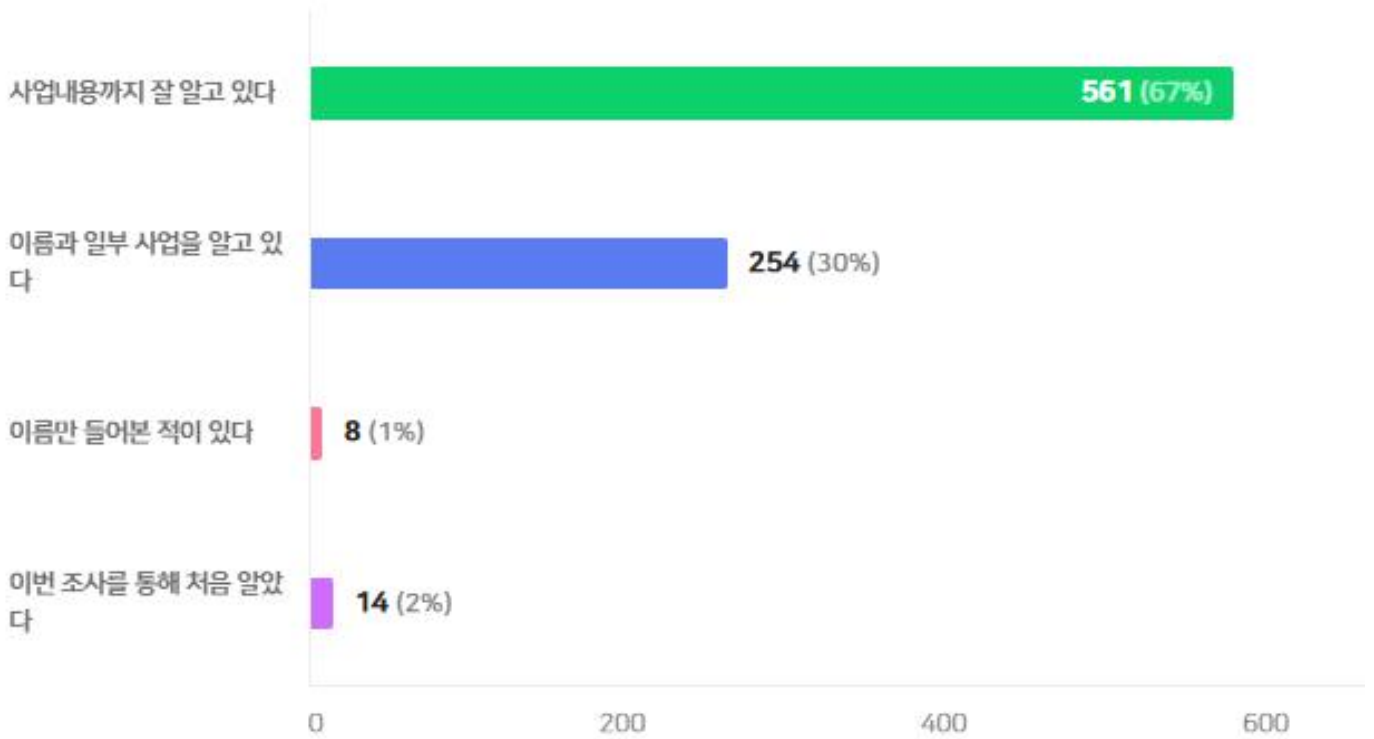
구분	분류	응답수	비율
성별	여	553	66%
	남	275	33%
	총 참여: 847명 / 응답자(성별): 832명 / 응답하지 않음: 4명		
연령	60~69세	409	49%
	70~79세	372	44%
	80세 이상	26	3%
	50~59세	20	2%
	40~49세 이하	13	2%
지역	동 지역	596	74%
	면 지역	117	14%
	읍 지역	15	2%
	춘천 외 생활권	80	10%
경제활동	은퇴·퇴직	274	32%
	임금근로자	207	24%
	가사·돌봄	130	15%
	사회공헌·봉사활동	124	15%
	구직 중	24	3%
가구형태	부부 가구	476	57%
	1인 가구	184	22%
	부모·자녀 동거	126	15%
	자녀·친족 동거	42	5%

I. 핵심 성과지표 분석

1. 재단 인지도

6. 춘천미래동행재단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835 · 미답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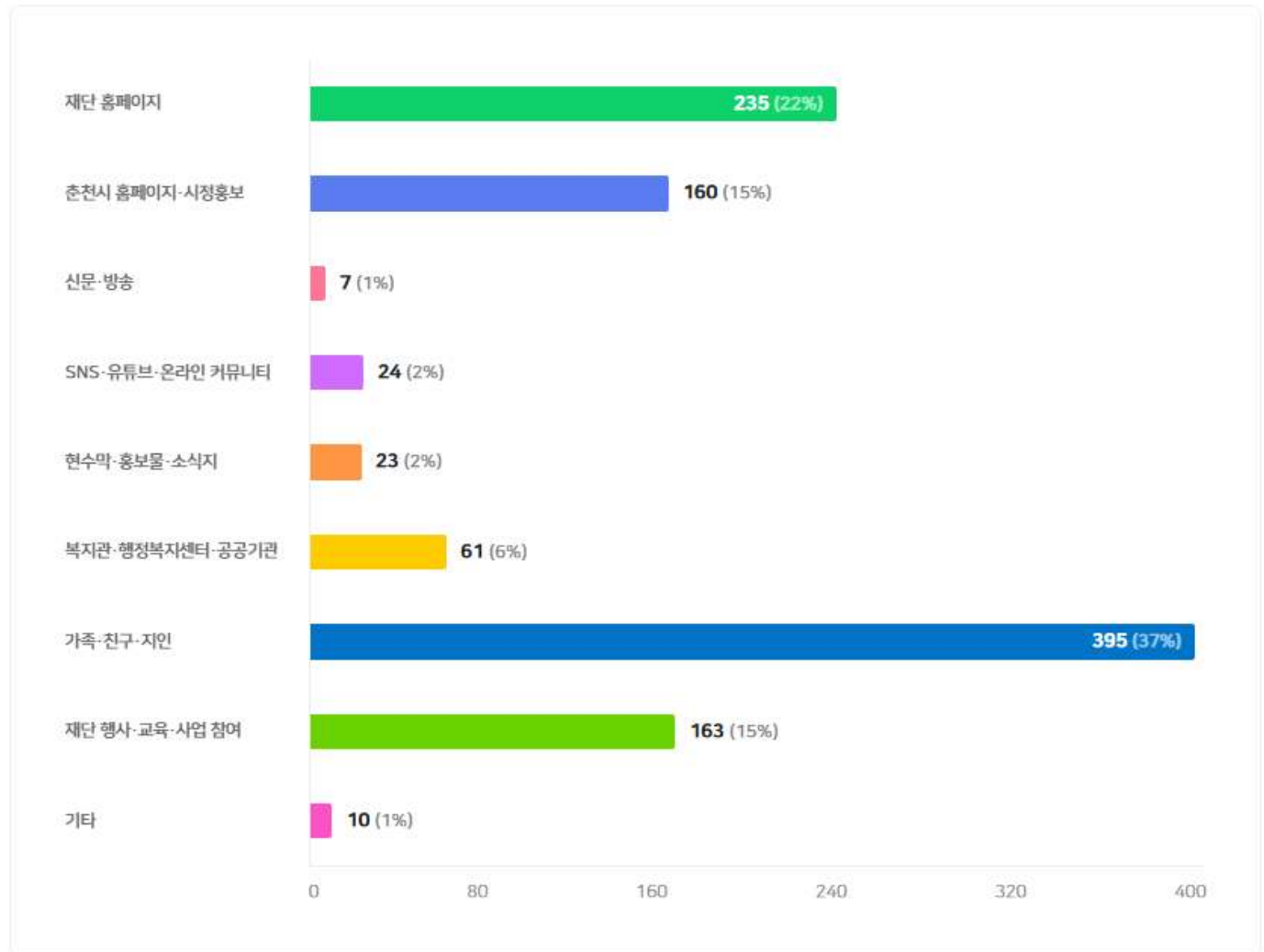
인지수준	응답수	비율
사업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561	67%
이름과 일부 사업을 알고 있다	254	30%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8	1%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	14	2%

2. 인지 경로

7. 재단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답변 836 · 미답변 11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경로	비율
가족·친구·지인	37%
재단 홈페이지	22%
재단 행사·교육·사업 참여	15%
춘천시 홈페이지·시정홍보	15%
복지관·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6%
SNS·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2%
현수막·홍보물·소식지	2%
신문·방송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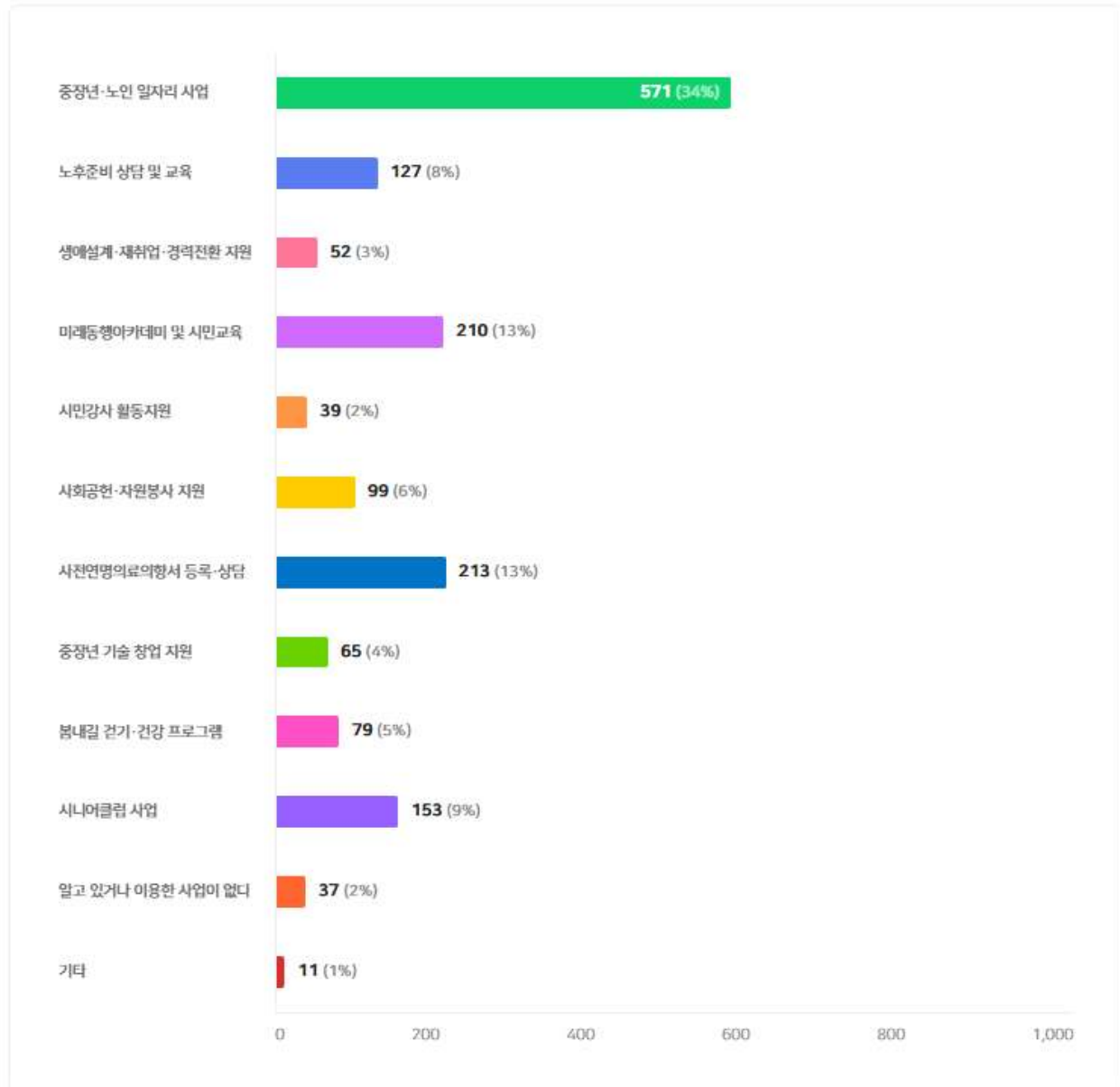
재단의 인지 확산은 구전(47.2%)이 1위

2-1. 사업별 인지·이용률

8. 다음 중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재단 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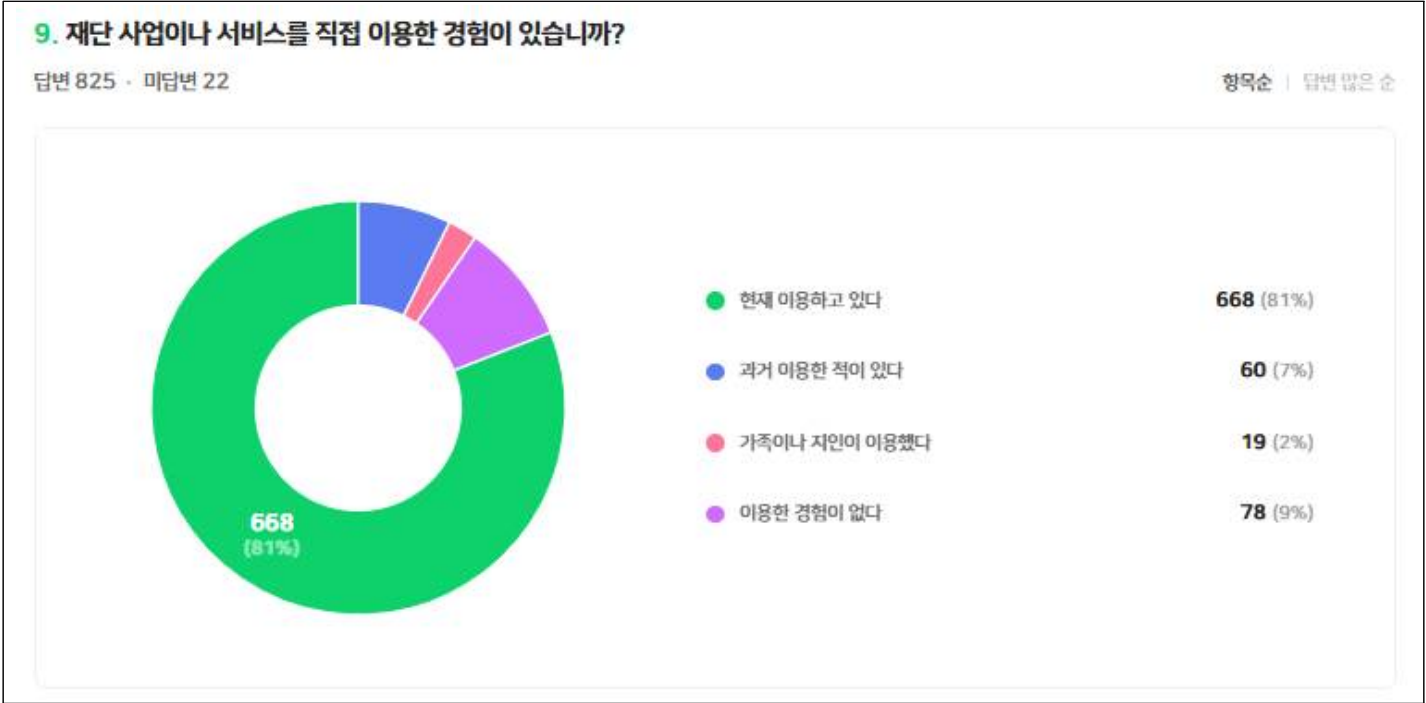
답변 824 · 미답변 23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사업	인지·이용률
중장년·노인 일자리 사업	3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13%
미래동행아카데미 및 시민교육	13%
시니어클럽 사업	9%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8%
사회공헌·자원봉사 지원	6%
봄내길 걷기·건강 프로그램	5%
중장년 창업 지원	4%
생애설계·재취업·경력전환 지원	3%
시민강사 활동지원	2%

3. 사업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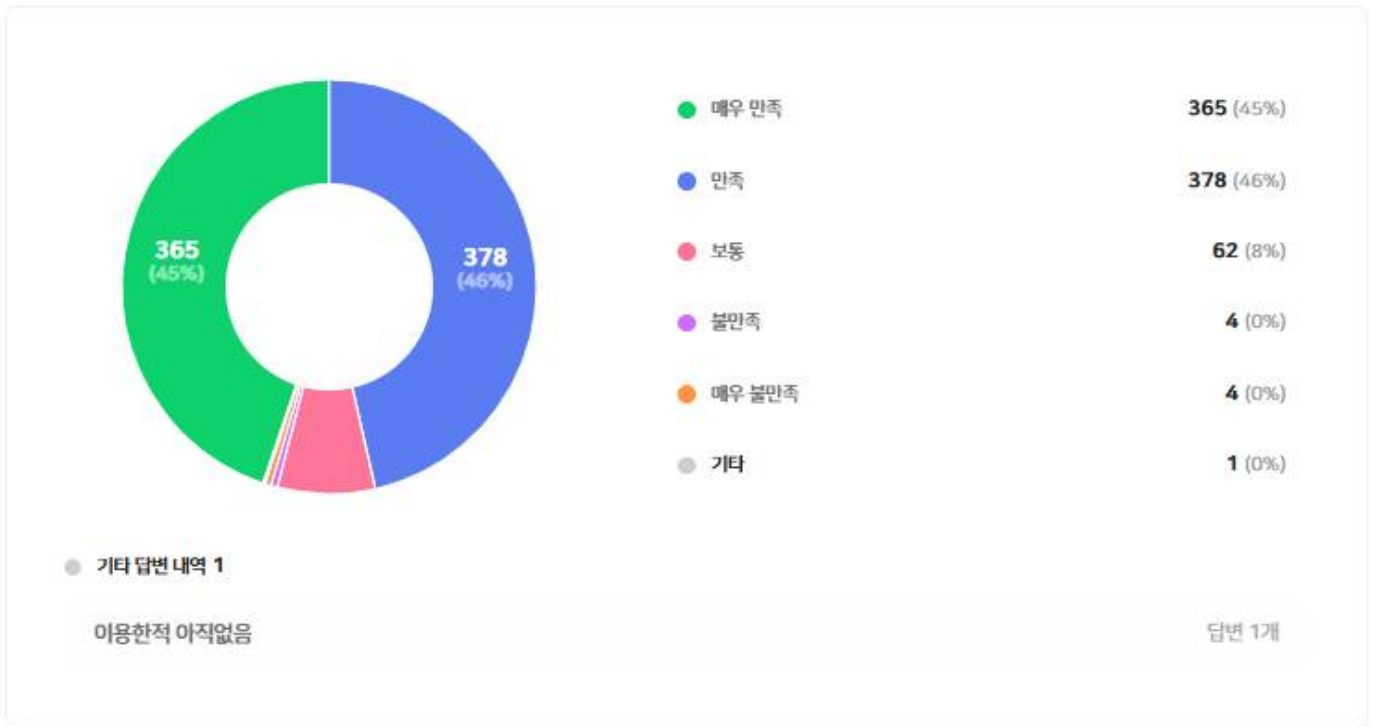
이용 상대	응답수	비율
현재 이용하고 있다	668	81%
과거 이용한 적이 있다	60	7%
가족이나 지인이 이용했다	19	2%
이용한 경험이 없다	78	9%

4. 종합만족도

10. 이용한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재단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

답변 814 · 미답변 33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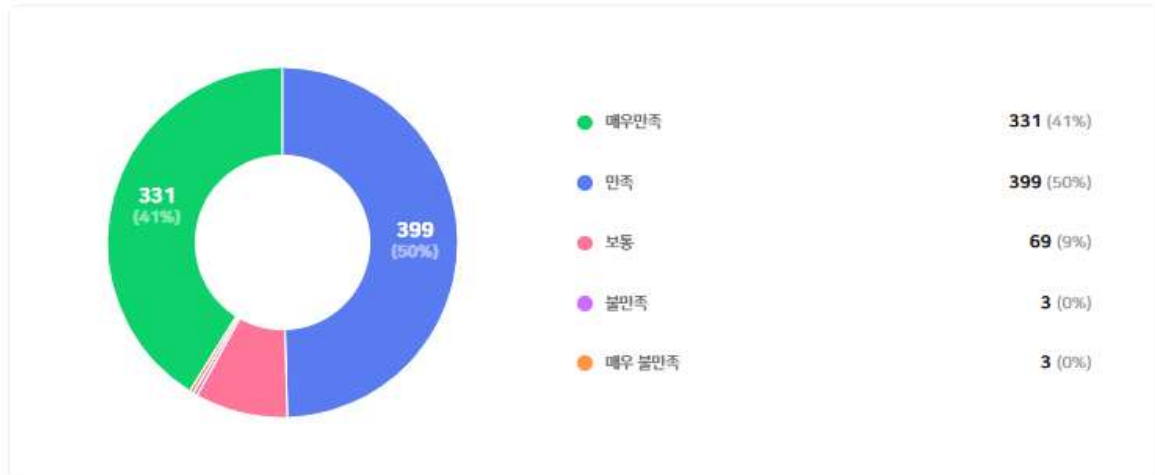
만족 수준	응답수	비율
매우 만족	365	45%
만족	378	46%
보통	62	8%
불만족	4	0.5%
매우 불만족	4	0.5%

5. 항목별 만족도

11. 다음 항목별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사업 내용의 적절성)(재단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

답변 805 · 미답변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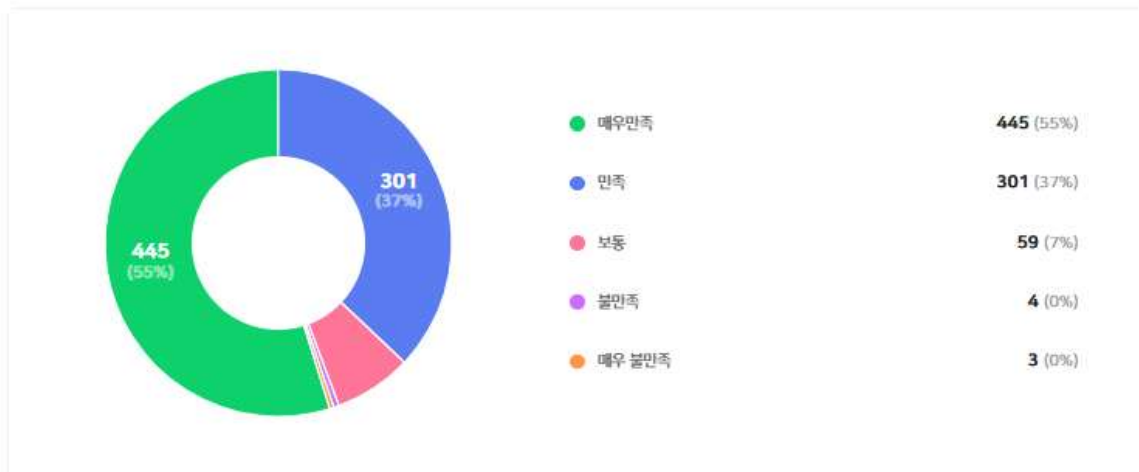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12. 다음 항목별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직원의 친절성과 전문성)(재단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

답변 812 · 미답변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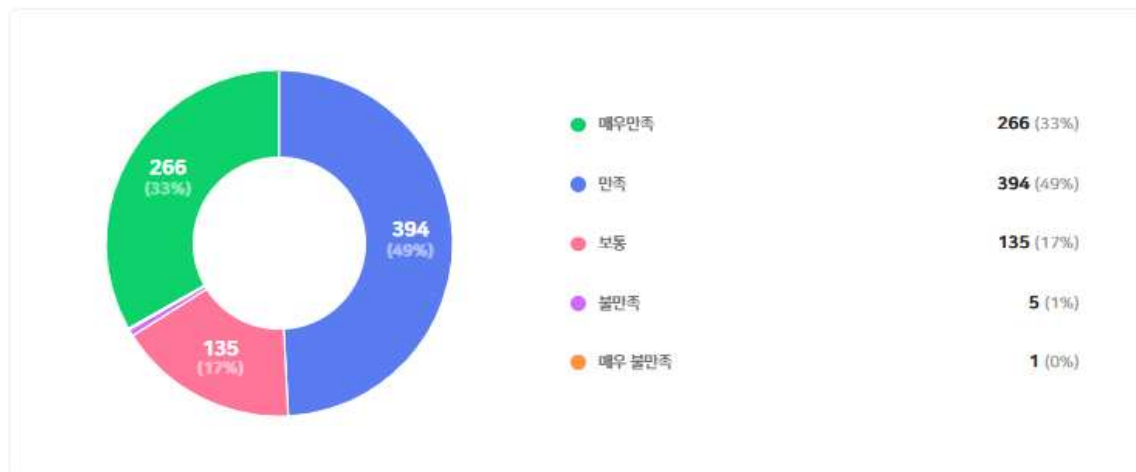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13. 다음 항목별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신청절차의 편리성)(재단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

답변 801 · 미답변 46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14. 다음 항목별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사업정보의 접근성)(재단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

답변 794 · 미답변 53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15. 다음 항목별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교육·상담·서비스의 품질)(재단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

답변 792 · 미답변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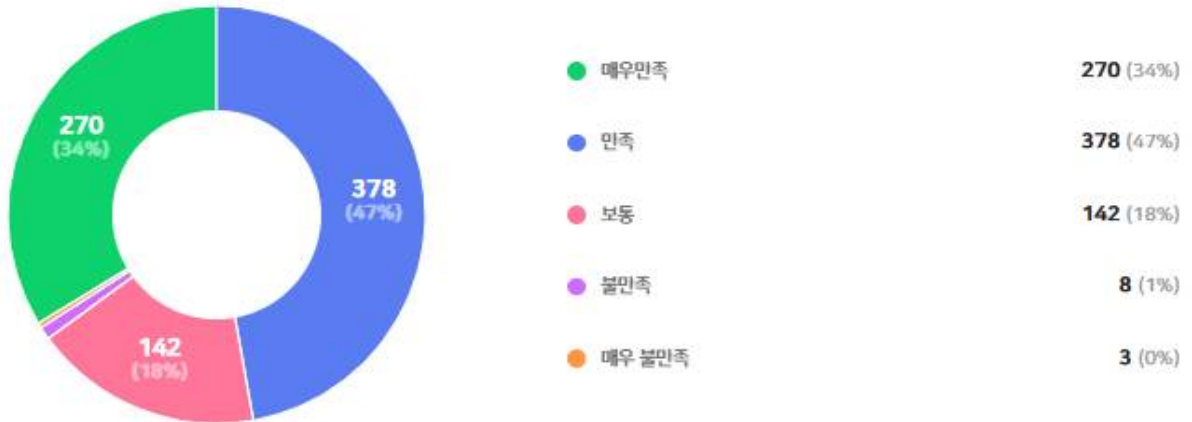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16. 다음 항목별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참여기회와 운영시간)(재단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

답변 801 · 미답변 46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17. 다음 항목별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전반적인 사업 효과)(재단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

답변 795 · 미답변 52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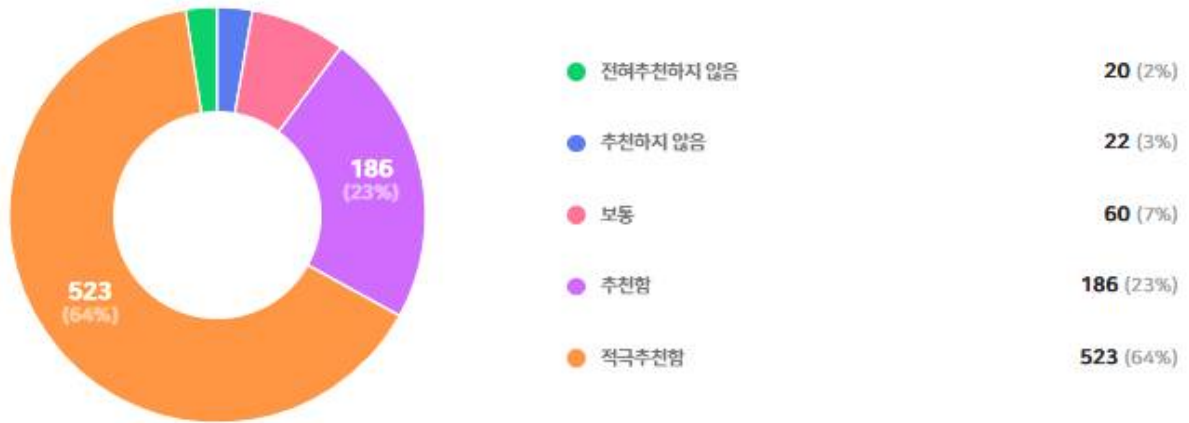
순위	항목	평균	긍정률
1	직원의 친절성과 전문성	4.45	92%
2	사업 내용의 적절성	4.31	91%
3	전반적인 사업 효과	4.23	88%
4	교육·상담·서비스의 품질	4.21	86%
5	신청절차의 편리성	4.15	82%
6	참여기회와 운영시간	4.13	81%
7	사업정보의 접근성	4.09	80%

6. 시민 추천 의향

20. 재단 사업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재단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

답변 811 · 미답변 36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추천 수준	응답수	비율
적극 추천함	523	64%
추천함	186	23%
보통	60	7%
추천하지 않음	22	3%
전혀 추천하지 않음	20	2%

7.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도

45. 재단은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답변 761 · 미답변 86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응답	비율
매우 동의	43%
동의	43%
보통	12%
비동의	1%
매우 비동의	0%

평균 4.51점, 필요 이상 응답 86%

Q28-4 “재단은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4.27점(동의율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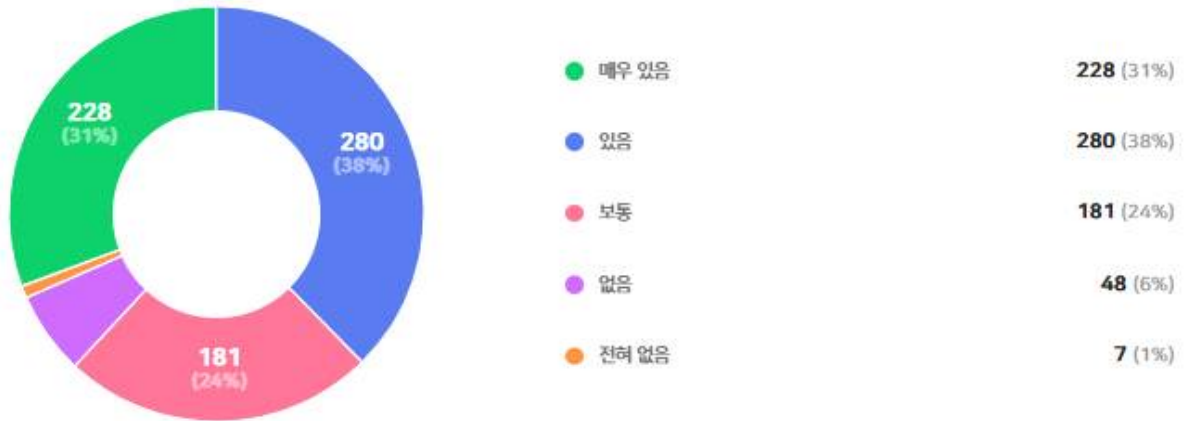
Q25 “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에서 ‘초고령사회 정책연구기관’은 5.6%로 8위

8. 신규사업 참여 의향

27. 다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시민 맞춤형 생애설계 상담)

답변 744 · 미답변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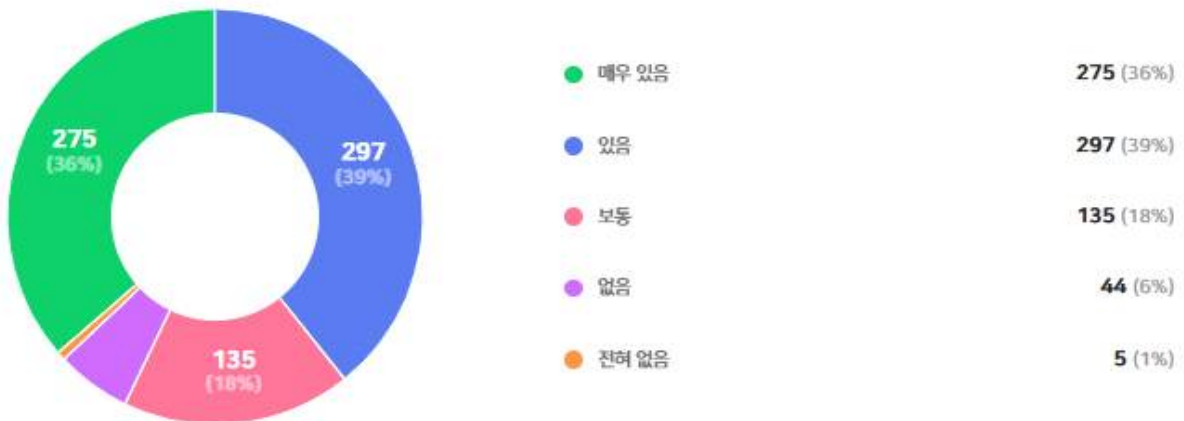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28. 다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중장년 재취업·경력전환 프로그램)

답변 756 · 미답변 91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29. 다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시니어 AI·스마트폰 교육)

답변 776 · 미답변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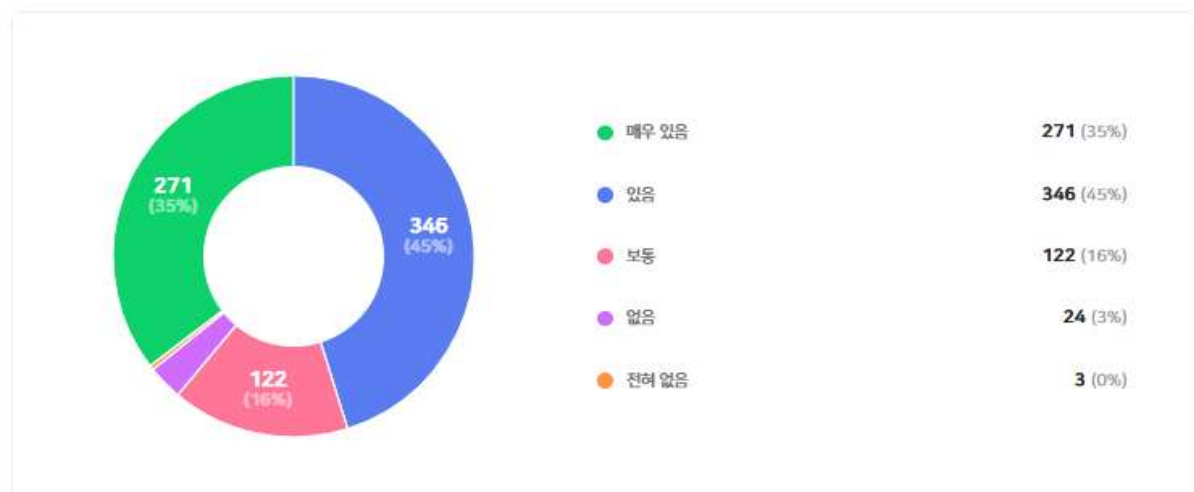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30. 다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건강·걷기·생활운동 프로그램)

답변 766 · 미답변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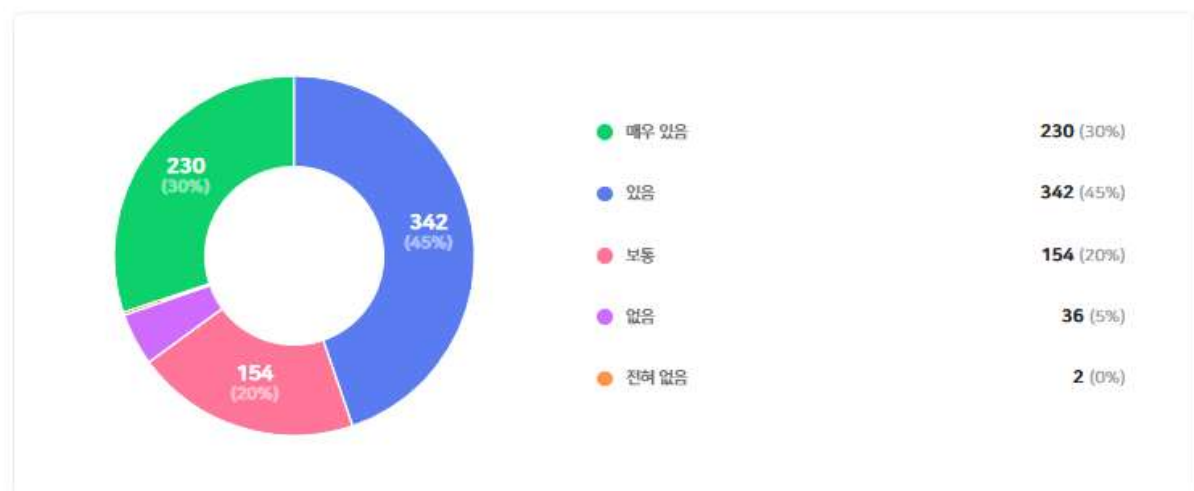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31. 다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사회공헌·자원봉사 활동)

답변 764 · 미답변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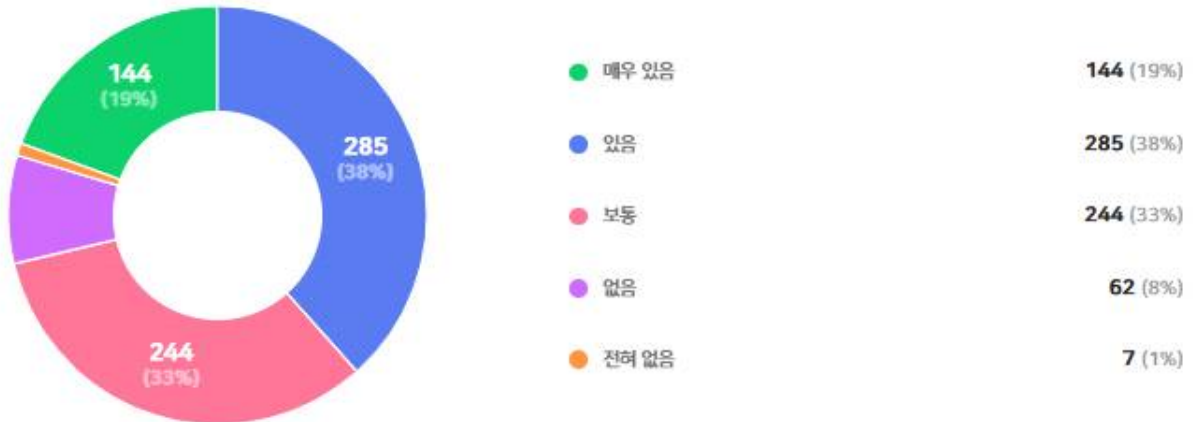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32. 다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세대통합 프로그램)

답변 742 · 미답변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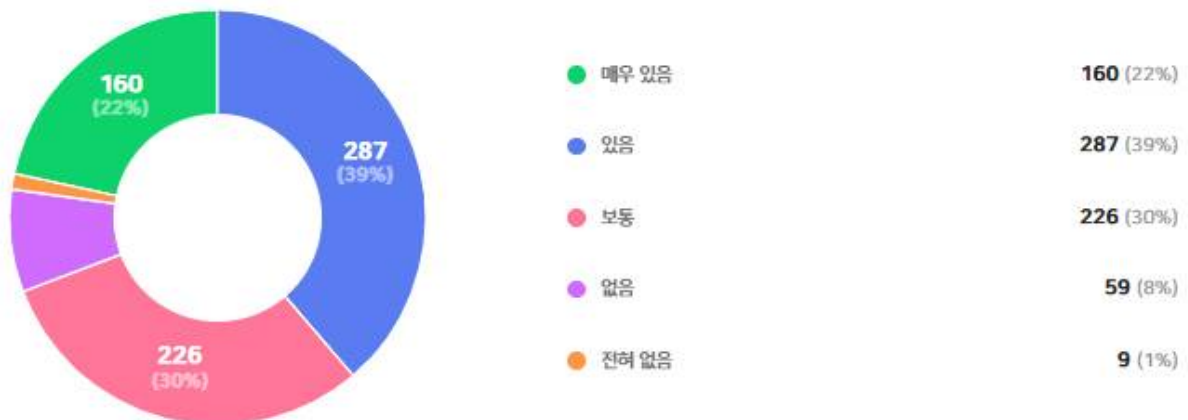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33. 다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고립예방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답변 741 · 미답변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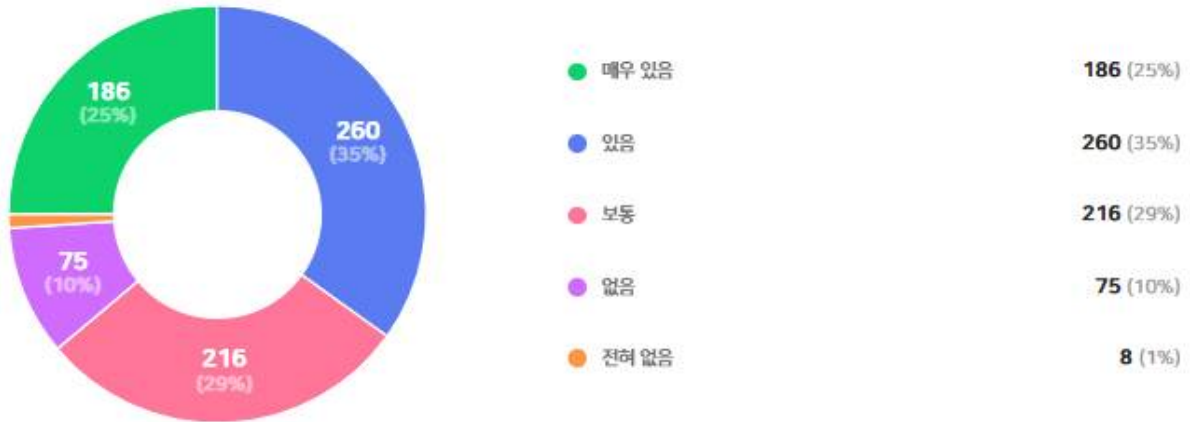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34. 다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웰다잉·엔딩노트 교육)

답변 745 · 미답변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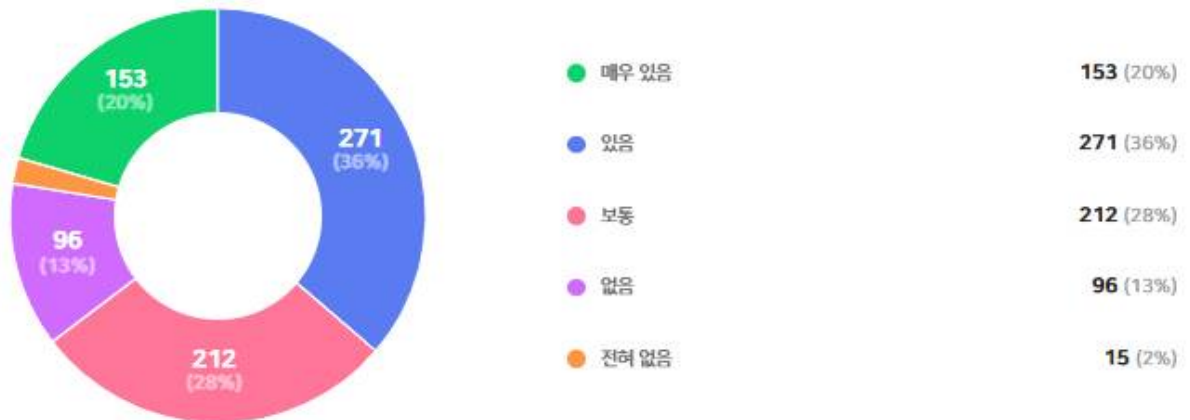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35. 다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중장년 창업·지역문제 해결사업)

답변 747 · 미답변 100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순위	신규사업	평균	참여의향률
1	시니어 AI·스마트폰 교육	4.15	80%
2	건강·건강·생활운동 프로그램	4.12	80%
3	중장년 재취업·경력전환 프로그램	4.05	75%
4	사회공헌·자원봉사 활동	4.00	75%
5	시민 맞춤형 생애설계 상담	3.91	69%
6	웰다잉·엔딩노트 교육	3.73	60%
7	고립예방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3.72	61%
8	세대통합 프로그램	3.67	57%
9	중장년 창업·지역문제 해결사업	3.60	56%

8. 재단 역할에 대한 시민 기대

Q25. 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복수응답)

순위	역할	응답수	비율
1	중장년·노년 일자리 전담기관	530	65.8%
2	시니어 교육·문화·건강지원기관	226	28.0%
3	춘천시 노후준비 종합지원기관	197	24.4%
4	중장년 재취업·창업 지원기관	132	16.4%
5	사회공헌과 시민참여 플랫폼	85	10.5%
6	지역 통합돌봄 협력기관	58	7.2%
7	민관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허브	49	6.1%
8	초고령사회 정책연구기관	45	5.6%
9	세대통합과 공동체 형성기관	24	3.0%

〈재단 역할 문항별 동의도(5점 척도)〉

문항	평균	동의율
재단은 춘천시민에게 필요한 기관이다	4.77	98%
재단은 시민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4.48	95%
민간기업·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4.39	89%
읍·면 지역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4.33	88%
재단은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4.27	86%
재단의 사업영역을 중장년까지 확대해야 한다	4.24	82%

〈초고령사회 최우선 정책〉

순위	정책	비율
1	연령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확대	83.4%
2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17.1%
3	중장년의 조기 노후준비 지원	14.7%
4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12.9%
5	건강수명 연장 프로그램	9.4%
6	민관기업 연계 고령친화산업 육성	9%
7	고독·고립 예방체계 구축	7.6%

II. 교차분석 항목

☐ 연령대별

<연령대별 지표>

지표	60~69세	70세 이상
응답 규모	409명	398명
재단 인지도(사업내용까지)	64.8%	69.8%
현재 이용률	80%	81.4%
종합만족도	4.35	4.36
추천 의향	4.53	4.38
정책연구 필요도	4.53	4.49
사업영역 확대 동의	4.25	4.19
재취업·경력전환 의향	4.17	3.88
AI·스마트폰 교육 의향	4.13	4.16

☐ 성별

<성별 지표>

지표	남(275명)	여(553명)
재단 인지도(사업내용까지)	74.5%	42.2%
현재 이용률	81.5%	78.3%
종합만족도	4.42	4.32
추천 의향	4.52	4.41
정책연구 필요도	4.59	4.47

- 양측 모두 만족도 4.3점대 이상으로 고르게 높은 수준 유지
- 여성이 응답자의 66.5%를 차지

□ 읍·면·동 지역별

〈지역별 지표〉

지표	동 지역(596명)	읍·면(132명)	시외 생활권(80명)
재단 인지도(사업내용까지)	65.9%	66.7%	72.5%
현재 이용률	81.5%	74.2%	70%
종합만족도	4.36	4.35	4.30
추천의향	4.46	4.42	4.42
읍·면 접근성 개선 동의	4.30	4.62	4.20
정보 수신 1순위	카카오톡 65.3%	카카오톡 57.9%	문자 67.1%

- 읍·면 접근성 개선 동의 4.62
- 만족도는 동 지역과 동일한 4.35 수준을 유지

□ 취업자·구직자·은퇴자별

〈경제활동 상태별 핵심지표〉

지표	취업자(235명)	구직자(24명)	은퇴자(273명)
재단 인지도(사업내용까지)	63.8%	58.3%	73.3%
현재 이용률	81.7%	50%	81.3%
종합만족도	4.44	4.45	4.35
재단 필요성 동의	4.83	4.87	4.75
정책연구 필요도	4.53	4.52	4.49
사업영역 확대 동의	4.31	4.35	4.16

- 구직자의 재단 필요성 동의 4.87, 만족도 4.45

□ 1인 가구와 다인가구별

지표	1인 가구(184명)	다인 가구(644명)
재단 인지도(사업내용까지)	67.9%	66.6%
현재 이용률	82.6%	79.3%
종합만족도	4.38	4.34
재단 필요성 동의	4.84	4.76
정책연구 필요도	4.55	4.50

- 1인 가구의 이용률(82.6%)과 필요성 동의(4.84)가 모두 높음
→ 재단 사업의 참여도가 큰 집단
- 인지 경로의 47.2%가 구전인 점을 고려하여 직접 안내 경로(행정복지센터 연계·문자 발송) 병행 시 효과 제고

□ 재단 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별

〈이용 여부별 지표〉

지표	이용자(728명)	미이용자(97명)
재단 인지도(사업내용까지)	69.2%	50.5%
재단 필요성 동의	4.79	4.65
정책연구 필요도	4.52	4.49
추천 의향	4.47	4.29
사업 평가	4.38	4.00

○ 미이용 시민의 재단 필요성 동의 4.65, 정책연구 필요도 4.49

- 미이용자의 사업 평가에는 가족·지인의 이용 경험을 통한 응답이 포함됨

〈미이용 시민의 신규사업 참여의향(5점 척도)〉

신규사업	미이용자	이용자
건강·걷기·생활운동	4.01	4.13
시니어 AI·스마트폰 교육	3.89	4.18
중장년 재취업·경력전환	3.84	4.08
사회공헌·자원봉사 활동	3.81	4.03
시민 맞춤형 생애설계 상담	3.80	3.92

○ 미이용 시민도 건강·걷기 프로그램에 4.01의 참여의향을 보임

○ 미이용 시민의 선호 채널은 문자메시지 56.7%, 카카오톡 50%

○ 미이용 시민이 기대하는 역할: 일자리 지원 57%, 교육·문화·건강 27.9%로 이용자와 유사

□ 중장년층과 노년층별

<중장년·노년층 특성 비교>

관점	중장년(40~59세) (설문참여자수: 33)	노년(60세 이상) (설문참여자수: 807)
현재 이용률	43.8%	82.7%
재단 인지도	48.5%	67.9%
핵심 관심 분야	공공형 일자리 45.2% 민간취업·재취업 41.9%	공공형 일자리 53.7% 건강관리·생활체육 25.5%
참여 가능 시간	온라인 시간 무관 41.9% 평일 오전·오후 각 35.5%	평일 오전 50.7% 평일 오후 26.8%
선호 참여방식	대면·온라인 병행 38.7%	대면 교육 28.8%
정보 채널	카카오톡 83.9% 이메일 22.6%	카카오톡 61.9% 문자메시지 46.5%
기대 역할	일자리 지원 58.1% 재취업·창업 지원 51.6%	일자리 지원 66.2% 교육·문화·건강 28.3%
주요 관심 사안	일자리 부족 67.7% 소득감소 54.8%	일자리 부족 50.2% 소득감소 26.2%

III. 정책연구 활용 방향

분석 기준에 따라 조사 결과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에 반영함
< 4유형 분류 기준 및 해당 사업 >

유형	분류기준	해당 사업
유지사업	만족도와 인지율이 모두 높은 사업	일자리 사업, 미래동행아카데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확대사업	참여 의향이 높은 사업	AI·디지털 교육, 봄내길 건강, 생애설계·재취업, 사회공헌·자원봉사, 노후준비 상담
개선사업	이용률이 높고 시민 요구가 확인된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참여기회·선발안내·연계·근무조건)
신규검토사업	자유 응답에서 제안된 사업	독거노인 안부확인, 은퇴 전문가 인력은행, 민간기업 연계 매칭 등

□ 유형1. 유지사업

<유지사업 - 만족도와 인지율이 모두 높은 사업>

사업	근거 지표	2027년 방향 제언
중장년·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 69.3%(1위) 최우선 정책 83.4% 만족 4.35	현행 유지, 규모 확대, 운영 내실화 병행
미래동행아카데미·시민교육	인지 25.5%(2위)· 교육·문화·건강 역할 기대 28%	현행 유지, 일자리·디지털과 연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인지 25.8%·웰다잉 의향 59.9%	유지, 안내 강화

□ 유형2. 확대사업

<확대사업 - 참여의향이 높은 사업>

사업	참여의향	알고 있는 시민
시니어 AI·디지털 교육	80%	(신규)
건강·걷기·생활운동(봄내길)	80%	9.6%
중장년 재취업·경력전환	75%	6.3%
사회공헌·자원봉사	75%	12%
노후준비 상담·생애설계	69%	15.4%

□ 유형3. 개선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복수응답) >

개선 요구	비율	순위
참여기회 확대	58.5%	1
활동비와 급여수준 개선	27.4%	2
참여자 선발기준 안내 강화	23.3%	3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연계	14.2%	4
근무지와 참여자의 적합성 개선	14.2%	4
참여자 직무교육 강화	7.8%	6
수요처와 참여자 간 조정	7.2%	7
안전관리 강화	5.4%	8

< 이용 과정 관련 의견 (복수응답) >

항목	비율	순위
특별한 불편이 없었다	52%	1
사업 종료 후 연계 보강 희망	17.3%	2
참여조건 완화 희망	10.2%	3
사업 종류 다양화 희망	8.4%	4
신청절차 간소화 희망	7.7%	5
사업정보 접근성 개선 희망	6.3%	6

□ 유형4. 자유 응답 제안 의견

제안 사업	언급	자유응답 원문 일부
독거노인 안부확인 지원	5건	"독거노인 방문 및 전화로 안전 관리" "독거노인과 매일 안부체크하는 부서가 있다면"
은퇴 전문가 인력은행	1건	"은퇴자 중 자격을 소유한 자를 온라인으로 등록 받아 수요자들이 쉽게 은퇴 전문가와 연결되도록"
지역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4건	"지역 기업과 협약을 맺어 민간과 연계하여 퇴직 전문가가 지속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인 수요와 직접 매칭되는 맞춤형 전직 프로그램으로 재편"
다문화 가정 한국어 지원	3건	"이주민 한국어... 법무부와 연계하여 언어 학습 강화 정책" "가정이나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확대	2건	"초등학교만 국한되지 않고 중학교도 범위를 확대" "기초학습지원사업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었으면"

□ 참여자 의견

현재 재단 사업 중 확대하거나 강화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일자리 수 증대
- 재단 홍보
-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어지고 자신의 주장이 강해진다. 대화법(상대를 존중하는)의 수강이 필요하다. 자신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 현재로서는 매우 만족합니다.
- 노인 일자리 다양화
- 아동 돌봄
- 노인 돌봄, 노노케어
-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걷기, 노래교실, 건강교육 등)
- 수요처와 참여자가 재단에서 정한 시간을 이행했으면 합니다.
- 도시 공원을 노령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 등하교 안전 도우미
- 더 많은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더 창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지속적인 참여 기회
- 지역관광 가이드 사업
- 재단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일관성 있는 추진
- 돌봄 사업
- 일자리와 연령에 맞춰야 한다.
- 웰다잉 교육
- 읍·면 단위 노령자 일손 봉사
- 환경보호
- 확대해야 할 사업은 파크골프 사업과 음주운전 단속이 필요합니다.
- 아예 하지 않고 있으며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세대 간 문제입니다. 시 청년청과 노인청은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두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뭔가를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이에 대비하려면 혁신적인 발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노인 부부에게 참여 기회를 주셔서 잠시라도 해방되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 일자리 확대와 전문성 강화
- 독거노인 방문 및 전화로 안전 관리. 3시간 근무 외에 관공서(행정복지센터) 근무와의 연계성이 형성된다면 근무시간 연장과 취업의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 디지털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고령자 건강관리 교육 강화
- 읍·면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 취업 희망자 대비 일자리가 부족하므로 일자리 확대에 더 중점을 두면 좋겠음.
- 노인 돌봄 교육
- 자격증 취득 교육

-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 일자리 발굴
- 지속 추진
- 창업 및 취업 교육 확대. 그에 따른 자격증 취득 교육, 창업 노하우 교육 등
-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중장년층의 교육 기회 제공
-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혹은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연락이 두절될 때 안부 및 근황을 빨리 알아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발견·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I 교육 확대
-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 노인 돌봄 영역
- 노인 일자리의 접근을 쉽게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지지난해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안내하시는 분을 보았는데 없어진 것 같아 아쉽네요. 저도 시청에서 할 때 2년을 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단순히 어디 가는 곳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버스 타실 때 거들어서 짐도 올려드리는 분이 필요합니다. 버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타거든요. 부탁드립니다.
- 춘천시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로드맵이 필요함
- 어르신 소비자 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 AI 등 정보격차 해소
-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공헌 활동
- 생활에 어려운 노약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 주시길 바랍니다.
- 초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학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 디지털·AI 분야 사회공헌, 소통
- 가정 안전(화재, 전기, 가스, 인명구조, 응급의료 조치 등) 방문 안전 조치 및 교육. 교육 시행 후 자격자에 한하여 사업에 투입.
- 선발 과정 서류를 최소화해야 함. 지금 설문 내용에 찬사를 보냅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조건에 재산 상황, 연금 수준을 반영한 선발 기준 마련.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업 참여자 증가는 일자리가 꼭 필요한 노인층의 참여를 제약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층의 참여를 배제했으면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 필요.
- 타 공공기관과 중복된 일자리(강원도교육청 각 초등학교 내 기초학습 지원 사업) 배제 필요.
- 노인 일자리
- 경계성 아동 돌봄 사업
-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돌봄서비스
- 중장년 일자리 창출
- 먹거리
-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 현재 시행하는 사업의 확대
- 많은 일자리를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 교육 강화가 필요한 사업: 아동 돌보미
- 공공시설 관리 지원. 예: 공원 제초(연간 책임제 운영), 지역 쓰레기 배출장 안내 및 감독 배치
- 역량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이 중요합니다.
- 자격 취득 교육
- 뭘 하든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니어는 시간이 없어요.
- 일자리 인원 확대와 비록 아르바이트 수준이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자체 관련 사업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 노인 일자리 늘리기, 노후 설계·재무 설계 교육
- 현 시스템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창업 지원
-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종류 및 규모 확대
- 중장년의 역량에 따라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 좀 더 세분화되어 역량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다.
- 일자리 확대
-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분들의 힘든 삶의 내용은 '외로움'이 컸다고 생각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춘천미래동행재단에서 작성하는지 잘 모름. 그러므로 시내에 플래카드 홍보 필요, 재단 일자리 홍보 전단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별도 표시
-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배치
-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어지고 자신의 주장이 강해진다. 대화법(상대를 존중하는)의 수강이 필요하다. 자신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 참여자들의 수준이 균형이 맞도록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노후, 노인이 찾을 도우미 사업
- 일 다니는 사업단의 일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
- AI·디지털 교육

축소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 일자리 참여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합니다.
- 재단에서는 수시로 상담해야 한다.
- 현재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이 곤란함.
- 많은 취업을 창출하는 사업이지만,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고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무처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단 역할에 맞는 사업단별 선발 기준이 촘촘하게 수립되고, 사업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바람직함.
- 재단의 독립성
- 무조건 확장하기보다 지역사회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대로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소는 모르겠고, 독거노인과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부서가 있다면 어려운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 만족하고 있습니다.
- 실제 취업과 연계율이 떨어지는 교육 지양
- 연금이 든든하여 생활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보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기초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선발 과정이 너무 까다롭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설문 내용에 호응하며 찬성합니다.
-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은 시청 관할로 하고, 미래동행재단은 자원봉사와 교육 등을 위한 기관으로 분리하기 바랍니다.

- 가끔 보면 노인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줍기, 놀이터 관리, 거리 순찰 등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보람 있어 보이는 일자리는 쓰레기 재활용 수거장 정리하시는 분들입니다.
- 아동 돌보미 사업 축소·개선 필요
- 일반적인 기관이나 업체의 단순 지원(안내, 보조 등) 사업은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요원 배치식으로 기관에 배치하지 말 것. 수요처에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곳도 있음. 실질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연간 책임할당제 도입 필요(예: 공원 관리 한 구역을 맡겨 매일 출근하든 주 1회 출근하든 해당 구역의 제초를 책임지는 방식 등).
- 시니어 사업의 다양성과 지원 확대
- 금융기관 안내 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준 있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별도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 개선할 점은 성격이 좋은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실용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가짓수보다 실효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 문제가 없는 선에서 연속적으로 돌봄 관계가 이루어져야 안정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 돌봄(초등) 사업: 학교 배정 때 한 학교에 계속 배정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듯합니다. (꼭 개선★★★★★)
- 참여자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정기교육 시마다)
- 정기교육 일자 및 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1) 폭염 2) 장소 협소 3) 교통 불편 4) 호흡기 질환 예방(코로나, 독감)
- 기초학습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활용
- 초등 돌봄 지원자의 연령 제한 → 계단 등의 오르내림이나 신체적인 부담
- 노인 일자리 제공이 일부 되고 있지만, 지역 기업과 협약을 맺어 민간과 연계하여 퇴직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함.
- 재단의 사업을 다 이해하지 못해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 한번 된 일자리는 2년 이상 연임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가 한번 이어지면 2년 이상 연속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영리 및 비영리 단체를 구분하여 추진
- 정기교육 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오전에는 오전 교육, 오후에는 오후 교육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각자의 일정에 따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합니다.
- 휴식 공간이나 개인 사물 보관 공간 필요
- 축소는 모르겠습니다. 근거리 지역의 학교에서 학습 및 정서적 기초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학교와 사전에 홍보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직역연금 수혜자보다는 저소득층에 우선 기회를 주셨으면 어떨까요.
- 돌봄지원사업단(장애인) 돌봄에 배치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때로 수요처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잉여 인력 문제가 있는 듯함. 할 일이 너무 없는 경우나 수요처에서 관리가 어려울 때 발생함.
- 매우 만족하지만 떨어지면 속상하다.
- 참여자의 특·장점을 조사하여 역량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 예) 지역아동센터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참여자의 과거 경력(중·등교원 재직 등)을 고려하여 1:1 교육으로 상호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천함.
-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탄력적인 시간 운영.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오지 택배의 경우 택배는 매일 발생하는데 근무 시간은 월 20일, 60시간으로 완전한 서비스 제공에 미흡함.
- 취업 지원이 단순 사무·직업 교육에 그치지 않고, 노인 일자리 및 지역 기업(관광, 귀농·귀촌,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구인 수요와 직접 매칭되는 맞춤형 전직 프로그램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 공연무대 사업에 같은 일자리인 것 같은데 추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프로그램을 주말에 개설

- 가정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구직자의 능력과 여건,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여 3시간(주 15시간)보다 더 긴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개선
- 참여자 선발 시 저소득층 위주로 해주세요.
- 설문지 내용이 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장 관련, 폭염 시에는 조끼를 입으니까 더욱 덥고 땀이 나고 답답하네요. 명찰 착용으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 기초학력 향상 사업을 더 늘렸으면 합니다.
- 면접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도서관 사업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 설문지 축소
- 올해 처음 활동하는 거라 이제 6개월 차라 아직 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지 못해 아쉽습니다. 더 오래하면 많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 축소는 모르겠고, 개선은 노인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은 해야겠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출근이 망설여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이 기다려지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 시간별 근로자 로테이션 - 서로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 사업단별 교육 및 화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및 언행, 예절)

재단이 새롭게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작성해 주십시오.

- 세대 교류 통합 프로그램
- 다양한 강좌
- 중장년 문화 활동 지원 확대
- 약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
- 재단이 더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 공원 관리
- 어린이 돌봄 사업
- 70대 이상만 참여하는 일자리 지속 발굴
- 현재 베트남 등 이주민들의 한국어 수준이 매우 낮다. 이 문제를 법무부와 연계하여 언어 학습 강화 정책을 세워 재단에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노인 텃밭 운영
- 기존 일자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무임금으로 봉사하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
- 자격증 등은 있지만 경력이 단절되었던 분들을 우선하는 사업 필요
- 노인 건강관리 사업
- 시니어 대상 연 1회 워크숍 및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우리 동네 문화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 정년 연장에 따른 중간 연령층에 대한 재취업과 일자리 정보 제공
- 각 사업단별로 업무 추진에 필요한 활동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미디어 영상물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인력 배치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민간기업 연계가 필요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 이수 후 재취업의 기회로 이어지면 좋을 듯함.
- 현재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해 주세요.
- 도심 지역 정원 관리 인력 배치
- 심도 있는 중장년 초기 인생설계 교육 확대. 취업 대비 자격증 교육, 인문교육 확대
-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아서 향후 기대가 됩니다.
- 중장년·노년·청년까지 통합 관리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 노인 상담을 지역별로 나누어 항상 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정책 확대
-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사업 및 정책 강화
-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세요.
- 노인 상담 및 멘토링 사업
- AI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 교육
- 노인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의 지원 사업
- 재단 홍보와 어르신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유튜브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내년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반영 요망
- 직장 에티켓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 수요처에 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 재단 관리 시설과 관리청으로 한다면
- 기초학습 지원 사업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었으면 함.
- 봉사활동 확대. 보수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음. 봉사 실적에 따른 추후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이든 교육이 바로 (적더라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새로 일자리를 모집할 때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경력 가산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제·행사 도우미로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 시니어 지역 연계 지원 사업
- 자기계발 프로그램
- 연관성이 있는 입주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교육은 할 때마다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
-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사업
-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아이들 돌봄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 꽃 가꾸기 사업 창출
-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취미 활동 강좌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많은 일자리 감사합니다.
- 현재의 연령대를 세분화했으면 합니다.
- 치매 예방을 위한 율동이나 레크리에이션을 교육이 있을 때마다 5~10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요처가 필요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 상담
- 청년 취업에도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꽃 가꾸기 사업
- 웰다잉 강좌 개설
- 재단이나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운동 프로그램(현재 생활체육 프로그램 포함)'에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여 체력이 비슷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세요.
- 춘천시에 새롭게 재단이 생긴다면 무슨 사업이든 환영할 것 같아요.
- 독거노인 말동무 해주기
- 은퇴 전문가 은행: 은퇴자 중 자격을 보유한 자를 온라인으로 등록받아 수요자들이 쉽게 은퇴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함.
- 의식주 생활은 생존의 기본권인데,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한 LH와 연계된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해 주면 좋을 것 같음.
- 다문화 가정 관리나 2~3세대의 관리·상담 및 한국어 수업 등 가정이나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
- 시니어들에게 맞는 체육 활동, 공연 관람의 기회 확대
- 시니어 교육·문화·건강 지원 기관
-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학반, 악기반 등)
- 독거노인 말벗·상담하기
- 아동(유아 포함) 돌보미 - 기본 소양 교육 후 가정 연계(가사 도우미 역할 추가 포함). 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교육을 40시간 수료했으나 '고연령'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불발된 경험이 있다. (보육교사 40시간, 일반 80시간) 많은 살림 경험과 육아 경험을 살려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예술 나눔 사업, 디지털·AI 교육 사업
- 필요한 영역에 대한 수요조사
- 가능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매칭되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 매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수요처와 활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수요처 - 활동자들에게 요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하여 처음 일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없게 한다.

- 활동자 - 수요처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사전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수요처와 활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조사하면 효과적일 것.)
- 민간사업체 지원 사업 추진
- 과거에는 버스정류장에 봉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버스를 타시는 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AI 교육(ChatGPT, Gemini, 스마트폰 등)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법무부와 연계하여 한국어 수준 자격을 위한 교사로서 활동
-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한다.
- 시내버스 주차장을 순회하며 청소나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집단 안전을 위해 교육된 참여자들을 수시·상시 배치했으면 합니다.
- 시니어의 정보격차(디지털) 해소 교육
- 복지 중심의 시혜성 사업에서 지역자산화 중심의 생산적 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춘천시의 중장년·노년 정책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 일자리 확대와 보수 현실화
- 문화동아리 지원 확대
- 월수입을 고려해서 선별하기
- 앞서 부탁드린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계속 참여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무관심이 많음. 확인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부부 공적연금자는 1인만 지원하도록.
- 연령대별 참여 가능한 일자리 연계 추진(현 70대 이상 일자리 참여 어려움)
- 지원 사업 경력자들이 매해 지원 서류를 준비하는 데 불편함. 해마다 지원하는 경력자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수요처의 요청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자체 정기 건강검진
- 노인 일자리라고 무조건 대상자는 아니다. 고액 연금 수령자는 선별해야 한다.
- 일자리 확대
- 통합돌봄 사업 확대(읍·면·동) 시행
- 시청·도청의 예산 확충 및 지원
- 일자리 선발이 퇴직 후 연금으로 풍요로운 월수입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음.
- 일자리 창출
- 생로병사. 이 사자성어를 모르는 대한민국 성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로 나오지도 않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단어의 뜻을 알면 교육을 더 한 것이라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바꾸려면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미래동행재단이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단체가 할 수 있겠습니까?
-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필요
-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생활과 연계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효과가 클 것임.
- 잘하고 계십니다.
- 참여 기회 확대

- 전 생애를 통합하여 맞춤형 재설계 정책과 재정 지원
- 춘천시 미래동행재단의 역할과 관련하여 고맙게 여기며 참여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요처에서도 조금은 존중과 배려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 여건 강화
- 노인 일자리 선별 기준을 개인별 소득과 관련하여 타당성 및 적절성을 강화하길 바람.
- 더 많은 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시니어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주세요.
-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생활에 어려운 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삶에 보탬이 되고 함께 사는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단이기를 바랍니다.
- 건강 관련 사업 추진 요망
- 관리재단청(부설)
- 노인 일자리 참여 조건 기준 마련
- 일자리 사업 분리
- 노인복지관이 많이 늘어났으나 아직 소외된 지역의 노인이 많음. 찾아가는 노인복지관도 일부 지역에는 필요함.
- 갖고 있는 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한한 역량을 지닌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 참여자가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인 사업 말고 바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사업
- 은퇴자 마을 꼭 춘천으로!
- 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일부 사업은 해당 업무에 대한 역량이나 기동력 등 변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니어 정책은 필수라 봅니다.
- 좀 더 다양성이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 지역 행사에 보유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년·노년 인력을 활용
- 장기적으로 노년 복지사업이 민간이 하는 돌봄서비스를 흡수·통합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돌봄은 물론 평생교육 등 노년 업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노동 강도가 좀 더 가벼웠으면 합니다.
- 현장에서의 처우 개선과 지금의 시간 외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해요.
- 한 달에 한 번 받는 교육이 힘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 일자리 창출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역량이 풍부한 분들의 지식과 재능을 기부받아 노년의 문화생활이 풍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노년기에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일자리 확대 및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 프로그램 증설
- 현재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 만족합니다.
- 산재되어 추진되는 각종 노인 관련 일자리·문화·예술·교육·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일관성 있게 사업별로 묶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개발해 주셨으면 함.
- 1년에 한 번씩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 체감온도 35도 이상 활동 중지 등 안전교육을 수요처 담당자에게도 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중장년: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사회 기여 사업
- 노인: 대화 나누기

- 지나친 사업 확대는 불필요하다. 적정선에서 꼭 필요한 사업, 수요처에서 강한 요청이 있을 때만 참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다고 본다. 서로가 모두 존중받고 학별로 인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재단에서는 유념해 주기를 바람.
- 단순 반복 업무보다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 경력·재능 활용 일자리 확대
- 활동일지를 나눠주신다면 필요에 따라 모아서 통계처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일기 기록을 위한 미니 활동 노트 보급을 원합니다.
- 현재 3시간을 1시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요망
- 일자리 많이 늘려주세요.
- 미래동행재단의 품격을 위해서 전년도에 근무했던 곳의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을 듯함.
- 일자리(직무 장소)를 자주 옮기지 않으면 좋겠다.
- 되도록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파견되면 좋겠다.
- 참여자의 역량을 기준으로 선발
- 건강 문제로 참여 기간 중 어려움이 있을 시 유연한 근무 일정 조정 바람
- 노인 일자리 확대 - 급여를 조금 줄여서라도 혜택받는 노인이 확대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11월만 되면 채용할 때 항상 떨어질까 걱정이다.
- 참여자의 인생과 경력을 충분히 살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접을 꼼꼼하게 하기 바랍니다.
- 춘천미래동행재단을 중심으로 대학·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성 활용 일자리 및 맞춤형 통합돌봄망 구축에 집중해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고령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장년·노년 교육·문화·건강 지원 기관으로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 기능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 어르신 체험 활동 확대, 각 노인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확대(특히 강사님들의 수준 향상이 요구됨)
- 수요처 배정 시 참여자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과다한 자원 지출 지양
- 폭염일 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 탈락자 없이 사업을 더 확장했으면 합니다.
- 아동 돌봄에 있어서 일하는 수요기관의 평가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